

## 베트남 북부 사원의 불교 목판 연구 시론\*

하 정 민\*\*

### 요약

베트남 북부의 불교사원에는 다수의 불교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이 불교 목판들은 주로 대승불교계 경전을 한자로 목판에 새긴 것으로 중국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교 목판이 제작된 배경으로 불교 및 대장경의 베트남 유입과 인쇄술로서의 목판 제작 발전에 대해 조사하고, 베트남 불교 목판 중 가장 잘 알려진 빈응이엠사 및 몇몇 사원의 목판을 중심으로 베트남 북부 불교 목판의 특징, 보존 현황 및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베트남 북부의 불교 목판은 중국의 목판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동시에 중국과 구별되는 베트남의 독특한 불교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베트남 불교 목판 연구는 베트남 간행 불교 전적의 전체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한자 불교권에서 펼쳐진 불교 문헌 목록에 종래 누락되어 있었던 부분을 완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베트남, 불교 경전, 대장경, 목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지역 기록유산, 빈응이엠사(Chùa Vĩnh Nghiêm, 永嚴寺), 응우옌(阮) 왕조, 찌놈(Chữ Nôm, 喃字), 꾸옥 응으(Quốc ngữ, 國語)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1080959)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jungminha@sogang.ac.kr

## I. 서론

베트남은 북부와 남부를 나누어 북방 육로와 남방 해로의 서로 다른 방향의 문화교류가 모두 나타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의 동쪽에 남북으로 긴 영토를 지닌 베트남은 일찍이 현재 수도 하노이가 위치한 북부에서 문명이 발달했다(송정남 2010, 1-4).<sup>1)</sup> 베트남 북부 지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문화의 영향이 매우 강했다. 기원전 179년부터 기원후 938년까지 오랜 기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10세기에 독립하여 응오 왕조(Ngô, 939-968)가 건립된 이후에도 중국의 침략이 잦았다.<sup>2)</sup> 불교 전래에 있어서도 베트남 북부는 북방 육로를 거쳐 중국에서 전해 받은 대승 불교가 강하게 자리 잡은 반면, 베트남 남부는 남방 해로로 전해진 힌두교와 상좌부 불교의 경향이 강하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베트남 북부의 불교사원에 보존되어 있는 불교 목판은 주로 북방 육로를 통해 전해진 대승불교계 경전을 목판에 한자로 새긴 것이다.

베트남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에서 목판이 주목받게 된 것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지정과 관계가 깊다. 응우옌(阮) 왕조(1802~1945) 시기 공식 문서와 왕과 귀족의 전기(傳記), 역사 등을 기록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황제의 칙령하에 제작된 많은 목판이 2009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sup>3)</sup> 이후 베트남의 다른 기록유산에도 관

---

1)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는 중국의 운남성에서 시작하여 베트남을 관통하는 홍(Hong, 紅)강이 흐르고 있어서 문명이 일찍이 발전했고, 하노이는 오늘날에도 경제, 사회,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다.

2) 독립 이후 베트남은 1406년부터 1428년까지 다시 명(明)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1883년부터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송정남 2000, 95).

3) 2009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들은 응우옌 왕조 때 편찬된 공식 문서와 역사적인 작품, 고전 서적 등과 함께 하노이 문묘(文廟)에서 나온 목판 등이다. 이는 중국어 또는 베트남어를 전사(轉寫)한 한자를 역방향으로 새긴 것이다. 이 목판들은 베트남 국가기록문서보관국(State Records and Archives Department of Vietnam)의 제4 국립기록물센터(National Archives Center No. 4)에 보관되어 있다.

심이 높아졌고, 이어서 하노이 북부 박장(Bắc Giang, 北江)성에 위치한 빈응이엠사(Chùa Vĩnh Nghiêm, 永嚴寺) 소장 불교 목판이 2012년 아시아 태평양지역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sup>4)</sup> 세계기록유산에는 등재되지 못하였으나 베트남 불교 목판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이후 빈응이엠사 외 다른 불교사원들에서도 수많은 목판이 보관되어 있음이 알려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베트남 북부의 여러 불교사원에서 제작, 보존하고 있는 불교 목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불교 목판이 제작된 배경으로 베트남에 불교 및 대장경의 유입과 인쇄술로서의 목판 제작 발전에 대해 조사하고, 가장 잘 알려진 빈응이엠사와 몇몇 사원의 목판을 중심으로 베트남 북부 불교 목판의 특징 및 현황을 탐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베트남 북부의 불교 목판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베트남에서 불교 목판보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응우옌 왕조의 유교 전적들은 한국 문화 및 역사와의 유사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되어 왔다(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편 2017, 2018a, 2018b). 반면 베트남 대승불교의 전파 및 수용 정도, 편찬된 불교 문헌 등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본 연구는 베트남 북부지역 불교문화와 함께 불교 목판에 대한 연구의 시론을 진행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베트남의 불교 목판 역시 한국의 불교문화 및 목판 경전들과 비교할 만한 지점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동북아적 특성이 강한 베트남 북부 지역 문화의 알려지지 않은 일면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빈응이엠사에는 3,050여 점의 목판이 소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Tran, Thi Loan and Nguyen Thi Ngoc Mai 2017; Nguyễn Tuấn Cường et al. 2018; 도 뚜언 코아 2017; “Woodblocks of Vinh Nghiem Pagoda, Bac Giang Province.” MOWCAP ARCHIVE. <https://mowcaparchives.org/items/show/94>(검색일: 2022. 10. 4.).

## II. 불교 및 대장경 전래와 베트남 불교 목판 제작

불교가 베트남에 언제 유입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전하는 자료 및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원후 1~2세기에 해로를 통해 상인들과 승려들에 의해 인도로부터 베트남으로 직접 불교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5)</sup>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강한 불교의 영향이 베트남에 미치기 이전이다.

불교는 리(Ly, 李, 1009-1225)·찐(Tran, 陳, 1225-1400) 왕조기에 번성했고, 이후 중국 명(明, 1368-1644) 침략 시기(1407-1427)와 레(Le, 黎, 1428-1788) 왕조기에 유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세력이 점차 약화하였다.<sup>6)</sup> 17~18세기에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불교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베트남 불교는 부흥의 시기를 맞이한다. 17세기 복건성(福建省) 출신 졸공(拙公, 1590~1644)과 강서성(江西省) 출신 명행(明行, 1595~1659) 선사가 베트남 북중부에서 활동하면서 현대에까지 이르는 베트남 북부 지역 불교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같은 시기 명·청(淸, 1636-1911) 교체기에 중국 남부의 승려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이동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온 불교 전적(典籍)류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불교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이 서적들이 저본(底本)이 되어 베트남에서의 첫 간행이 이루어진 후, 18세기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재간행이 이루어졌다.<sup>7)</sup> 현존하는 불교 목판의 대부분을 차지하

---

5) 레 왕조 시기에는 세력이 컸던 북부의 찐 씨(鄭氏)와 중부의 응우옌 씨[阮氏] 가문에서 불교를 신앙하고 교단을 보호하여 베트남 불교가 이어질 수 있었다. 베트남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Nguyễn Tài Thu, ed. 2008, 9-15; Peter Kornicki 2007, 121-124; 이병욱 2018, 286-324; 송정남 2000, 94-98 등 참조.

6) 레 왕조 이후의 정권과 유교(주자학)의 도입과 불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川本邦衛 1976, 223-303; 石井公成 2010, 335-391 참조.

7) 명행은 전적 수집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고, 이때 수많은 전적을 베트남에 가지고 왔다. 명행이 이때 베트남에 가지고 온 전적이나 이들을 저본으로 간행한 베트남판 불전에 대한 전체상은 아직 미상이지만, 매우 많은 수의 전적을 베트남에 가지고 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중국 17세기 베트남으로 이주한 중국 승려들이 가지고 온 불

고 있는 것은 중국 명·청대 불교 전적을 베트남에서 복각한 것, 그리고 이후 재간한 것이다. 소수의 베트남 찬술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불교 경전의 총서인 대장경은 베트남에 11세기 초, 서기 1005년에 전해졌다. 이 대장경은 북송(北宋, 960년~1127년) 초기 간행된 <개보칙판대장경(開寶勅版大藏經, 971년~983년 제작)>(이하 <개보장(開寶藏)>)이었다.<sup>8)</sup> 전 레(Early Lê, 前黎, 980~1009) 왕조의 창시자 레 호안(Lê Hoàn, 黎桓, 941-1005)이 1,005년(송의 경덕[景德] 2년)에 송나라에 대장경을 청하였고, 이에 따라 베트남에 대장경이 하사되었음이 중국 송사서(史書)인 『송회요(宋會要)』에 보인다.<sup>9)</sup> 이후에도 몇 번 중국에 대장경을 요청한 기록이 있으나 받았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뒤를 이은 전 레 왕조의 황제인 레찌쑹(Lê Chí Trung, 黎至忠)이 1007년에, 이후 리 왕조 성립 후에도 송나라에 대장경을 요청했다(川上正史 1944, 59-62; 石井公成 2022, 420-421).

불전(佛典)의 간행·인쇄와 관련해서 베트남의 상황은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중국의 각 왕조나 한반도의 고려, 일본의 여러 왕조에서 국가의 원조 및 거대 사찰의 주최로 대장경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대장경이 간행되거나 불경 대부분을 인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불교 전적의 목판 인쇄 자체는 성행하였으나 모두 단행(單行)된 경전이었으며, 각 지역 주요 사찰이 주체가 되어 승려들과 재가 신도들의 희사(喜捨)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베트남의 목판 인쇄술의 발전 역시 불교 목판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

경과 불상 등은 베트남 불교의 발전에 기여했다(송정남 2000, 102-107; 宮嶋純子 2020, 157-159).

8) 개보장은 판목 13만여 장에 새겨지고, 권자 5천여 권으로 이루어진 일대 불교총서(佛敎叢書)이다. 개보장이 개판되자 중국 내 대사원뿐만 아니라 곧 당시 고려와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도 하사되었다. 고려에는 991년 전해졌다.

9) 『宋會要』卷197; 宮嶋純子 2020, 157. 이는 고려, 일본보다 늦지만, 여진(女眞), 서하(西夏)보다 이르다(石井公成 2022, 420).

베트남 북중부에서 활동한 선사들에 관해 기록하며 14세기 전반에 찬술된 『티엔 우이엔 텡 아인』(Thiên uyên tập anh, 禪苑集英)에 따르면 리·쩐 왕조(1009~1399) 시대에는 목판 판각이 널리 유포되지 않았고, 사원에 서만 행해졌다고 한다(쩐 번 공·쩐 티 미잉 2018, 147). 베트남의 목판 인쇄는 레 왕조기인 15세기경에 본격적으로 행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이후 르엉 느 혹(Luong Nhữ Hộc, 梁如鵠, 1420~1501)이 15세기 중엽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목판 인쇄술을 배워와서 베트남 북부 하이즈엉(Hải Dương, 海陽)성의 홍록(Hồng Lục) 마을과 리에우짱(Lieu Chang) 마을 주민들에게 전해주었다고 전한다. 이후 이 지역은 베트남 목판 인쇄업 장인들의 직업 마을 형태로 발전하였고, 베트남 최초의 전문적인 인쇄 중심지가 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2007, 28-29; 타이 쑹 쓰 2018, 193-195).<sup>11)</sup> 이후 응우옌(Nguyễn, 阮, 1802~1945) 왕조는 목판 제작 및 인쇄업이 가장 발전한 시기였다. 국가 및 민간 기관에서 활발히 목판을 제작하여 책을 출판했다.<sup>12)</sup>

10) 베트남에는 13세기 말 불교 관련 인쇄를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당시 인쇄했다는 서적들은 현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인쇄술이 사용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시기는 15세기이다. 한편, 베트남의 최초 목판은 1세기부터 루이 러우(贏婁, Luy Lâu)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루이 러우는 기원전 111년부터 기원전 106년까지 자우찌(交趾)군의 지청(支廳)이면서 자우저우(交州)의 수도이기도 했다. 중국이 지배하던 시대에 루이 러우는 베트남의 가장 오래된 대규모의 정치 중심지는 물론이고 경제, 무역, 문화, 종교 중심지였다. 현재 박닌성에 위치했던 루이 러우는 불교의 중심지이면서 베트남의 최초 불경을 인쇄한 곳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는 희박하다. 베트남의 한적(漢籍) 인쇄의 유통과 출판의 역사에 대해서는 張秀民 1958; 劉玉珺 2007; 陳益源 2011; 宮嶋純子 2020, 155; 응우옌 푸언 공·팜 반 푸언·응우옌 카오 탄 2017, 157 등 참조.

11) 이곳에서 『대월사기전서』(大越史記全書, Đại Việt sử ký toàn thư) 등의 베트남 유명한 역사서들이 인쇄되었다.

12) 이러한 책들을 찍어냈던 목판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당시에 간행되었던 책들은 불교 경전, 역사서, 시문, 의학서, 교재, 지리서, 법률서, 목판화 등 매우 다양하다(쩐 번 공·쩐 티 미잉 2018, 149-150).

### Ⅲ. 베트남 북부 불교 목판의 특징 및 현황

베트남에서는 매우 많은 불교 전적들이 간행되었고, 그를 위해 제작한 다수의 목판이 베트남 북부 지역 불교사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 지역 불교사원들은 대부분 선종 계열에 속하는데 그 종파가 죽림(竹林), 임제(臨濟), 조동(曹洞) 등 어디에 속하든 간에 관계없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공통 기반으로 사원 생활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금강경(金剛經)』, 『반야경(般若經)』, 『법화경(法華經)』, 『화엄경(華嚴經)』, 『아미타경(阿彌陀經)』 등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들이 중시된다. 이 가르침들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전하기 위해 불교 목판이 제작되고 인쇄되었다. 이러한 대승불교 경전 외에 다양한 경율논서 및 베트남 찬술서 등이 목판으로 제작되었다(응우옌 뚜옌 쾡영·응우옌 디잉 흥 2018, 49).

불교 목판을 제작하고 보관해 온 가장 대표적인 사원은 하노이 북동쪽에 있는 박장성 빈응이엠사(Chùa Vĩnh Nghiêm, 永嚴寺)이다(도 1). 이 사원은 11세기 리(Ly) 왕조기에 건립되었다고 전하며, 13세기 말 죽림선원이 개창된 이후로 베트남 북부의 최대 대승불교 중심지로 기능하며 승려들의 강습 및 교육도 담당했다.<sup>13)</sup> 그뿐만 아니라 빈응이엠사는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줄곧 베트남의 중요한 불교 경전 출간소로서 목판 제작을 주관하고, 목판



도 1. 박장성 빈응이엠사(Chùa Vĩnh Nghiêm, 永嚴寺) 본당 전경(사진: 하정민)

13) 빈응이엠사에는 죽림의 세 선조인 쩌인종(Trần Nhân Tông, 陳仁宗, 1278~1293년 재위), 팜로아(Pháp Loa, 法螺, 1284~1330), 후엔꽁(Huyền Quang, 玄光, 1254~1334)이 주지승으로 지내며 유명한 선학원인 죽림선원(竹林禪院)이 개창되었다. 현재 중심각인 삼보전(三寶殿)에는 18~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불교 조각들이 전한다. 빈응이엠사의 역사에 대해서는 도 뚜옌코아 2017, 106-109; 르영 흥꾸앙 2017, 115-116.

을 보관하고, 불경을 간행하여 전국에 유포하는 업무를 맡았다.<sup>14)</sup> 이후 잦은 전쟁과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해 많은 목판이 소실되었으나, 현재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각기 다른 시기에 판각된 3,050여 점의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도 뚜언코아 2017, 106-114). 빈응이엠사의 불교 목판은 현재 사원 내부의 “목판장고(木版藏庫)”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와 마주 보는 전시관에 일부가 전시되어 있다(도 2, 3). 이 두 건물은 사원 목판이 2012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에 지정되면서, 목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2016년에서 2017년에 걸쳐 300억 동(đồng, 한화 약 15억 원) 예산으로 건설된 것이다.<sup>15)</sup>



도 2. 빈응이엠사 목판장고(사진: 하정민)

- 14) 목판 제작은 사원의 초청으로 베트남 북부 하이즈엉성의 인쇄 전문 마을에서 온 목판 제작 전문 장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전한다.
- 15) 2017년 10월 전까지는 빈응이엠사의 목판은 별도의 보존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이전에는 대웅전과 사원의 오른쪽에 있는 회랑의 두 곳에 목판이 보관되어 있었다. 대웅전에 목판이 담긴 네 개의 판가가, 회랑에는 2개의 목판 판가가 있었다. 2012년 이후 목판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게 되면서 목판 보존을 위해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다. 외관은 전통적인 베트남식으로 하여 전통적인 목재, 석재, 벽돌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내부에는 표준 공기조절 장치, 화재 방지 장치, 습기 및 먼지 저항 시설을 갖추어 고안했다(도 뚜언코아 2017, 113-114; 르영 흥꾸앙 2017, 117-119).



도 3. 빈응이엠사 목판 전시관(사진: 하정민)

베트남 북부의 불교 목판에 대한 개괄은 빈응이엠사의 목판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불교 목판은 현재 검은색 광택을 띠고 있다. 이는 목판이 인출에 여러 번 사용되어 먹이 나무 표면에 침투하여 색이 변한 것이다.<sup>16)</sup> 모든 목판은 감나무과 감나무속(*Diospyros decandra* Lour) 목재인 티(thi) 나무로 제작되었다.<sup>17)</sup> 대부분 목판 양면에 해서(楷書)의 서체로 한자를 판각하고, 글자는 모두 실제 글자와 좌우를 반대로 새겨서 종이에 인쇄하였을 때 바로 보이도록 했다. 글자 자경(字徑)은 약 1.5cm, 깊이는 1~1.5mm 정도로 새겼다. 목판의 크기는 균일하지 않으며 서적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다. 평균은 가로 약 33cm, 세로 약 23cm, 두

16) 송진, 그을린 톱밥, 소가죽으로 만든 아교 등을 주요 재료로 수작업을 통해 중국에서 전해진 전통 방식으로 만든 먹은 목판 속에 침투해서 목판 표면에 보존 층을 형성하여, 목판에 방수, 흰개미 퇴치, 방습의 효과를 준다.

17) 티나무는 부드러우면서도 튼튼하여 판각이 쉽고 휘거나 균열이 잘 생기지 않는 성질로 인해 판각에 적절한 재료이다. 이 나무는 사원의 정원에서 주로 채취되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원래 이 나무는 베트남에서 흔한 종류였으나, 현재는 사원 경내에 한 그루 남아 있을 뿐이고, 거의 멸종 단계의 나무로 알려져 있다. 목재의 운반 경로는 조사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도 뚜언코아 2017, 108-109).



도 4. 빈응이엠사 소장 『화엄경소초회본(華嚴經疏鈔會本)』 목판 (사진: 하정민)

께 약 2.5cm이다(도 4).<sup>18)</sup>

목판 판각의 형식은 중국에서 전해진 전통적인 판각 방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내려가도록 하였고, 대부분 각 판면에 책 두 면을 배정하여 판각했다. 책의 내용이 판각된 판면(板面)을 구성하는 외곽 테두리 부분을 광곽(匡郭) 또는 변란(邊欄)이라고 하는데, 보통 굵은 선과 그 안쪽에 가는 선, 총 두 개의 선으로 두른다. 광곽 내부에는 가는 계선(界線)을 두어 본문의 각 줄 사이를 구분하였다. 판면의 중심부인 판심(版心)에는 보통 책 제목을 알려주는 글자인 판심제(版心題)와 권차(卷次), 장차(張次) 등이 들어간다. 판심 상하에 장식 문양인 어미(魚尾)가 들어간다. 판각된 내용을 인출하여 책으로 엮을 때 중앙의 판심 부분을 경계로 반으로 접히게 된다.<sup>19)</sup>

빈응이엠사의 목판들을 조사한 결과 총 9종류의 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졌다. 그중 대부분이 죽림선원의 창시자들에 의해 쓰인 불교

18) 가장 큰 목판은 길이가 1m 이상이며 너비는 약 40~50cm이다. 가장 작은 목판은 가로 20cm, 세로 15cm이다.

19) 목판의 구조에 대해서는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편 2014 참조.

경전 및 불교 계율에 관한 것이다.<sup>20</sup>) 불교 경전으로 분류되는 경전이 세 종류, 불교 계율에 관한 문헌이 세 종류, 그 외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 서적 세 종류가 있다. 각 목판에 판각 연대를 새겨서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다. 불경으로 『불설아미타경소초(佛說阿彌陀經疏鈔)』(1873년 판각), 『화엄경보현행원품별행소초(華嚴經普賢行願品別行疏鈔)』와 『화엄경소초회본(華嚴經疏鈔會本)』(1921~1930년 사이 판각)이 있고, 불교 계율에 관한 문헌으로 『대승지관(大乘止觀)』(1935년 판각), 『비구니계경(比丘尼戒經)』(1881년 판각), 『사미니계경(沙彌尼戒經)』(1881~1883년 사이 판각)이 있다. 그 외 도가에서 인간의 선행과 악행에 대한 하늘의 업보를 밝히고 있는 『경신록(敬信錄)』(1876년 판각)과 문학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서방미인전(西方美人傳)』(1873년 판각), 『선종본행(禪宗本行)』(1932년 판각)이 있다. 이 밖에도 약학 서적과 왕의 법령을 새긴 것, 불교 신도들을 위해 장례에 사용되는 수의에 인쇄하기 위한 목판이나 부적(符咒)을 새긴 목판도 있어서 흥미롭다.<sup>21</sup>) 현전하는 목판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은 1873년에 새겨진 『불설아미타경소초』와 『서방미인전』이고, 가장 늦은 시기의 판각은 1935년에 새겨진 『대승지관』이다.

베트남 불교 목판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목판 제작에 중국의 한자뿐 아니라 베트남인들이 한자를 모방하여 만든 쯤놈(Chữ Nôm,喃字, 또는 نوم 문자)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sup>22</sup>) 쯤놈은 한자를 바탕으로

20) 각 목판의 첫판이나 마지막 판에 제작 시기, 제작자 이름, 보관장소를 새겼다(전 반공-전 티미잉 2018, 162).

21) 베트남에서 찬술된 불전 및 문학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안자일정(安子日程)』, 『신유서방기(神遊西方記)』 등이다(Vũ Đức Nghiệu, ed. 2018, 52-62; 르영 홍꾸앙 2017, 116).

22) 베트남 불교 목판은 크게 네 종류로 분류된다. 첫째, 순수한문으로 번각한 목판, 둘째, 한문과 쯤놈을 혼합하여 인쇄한 것, 셋째, 쯤놈으로만 새겨진 것, 넷째, 오늘날 라틴화 된 베트남어를 사용하여 판각한 것이다. 이 중 마지막은 오늘날 꾸옥 응(Quốc ngữ, 國語)라고 부르는 것으로, 20세기 초부터 베트남인들이 본격적으로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여 문자로 사용하면서 꾸옥 응을 이용한 불교 목판이 제작되기 시작했다.

만들어 한쪽은 소리를 표시하고 한쪽은 뜻을 표시하는 새로운 글자인데, 11세기 리 왕조 시기에 이미 나타나며 이후 20세기 초까지 베트남인들의 생활 속에서 계속 발전했다.<sup>23)</sup> 빈응이엠사에 소장된 목판 중에서 1932년 판각된 『선종본원』이 쓰놈문자로 새겨졌다.<sup>24)</sup>

빈응이엠사의 불교 목판은 원래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었으나, 매우 많은 목판이 보관 중에 파손되었고 현재 일부만 남았다. 시간의 흐름에 의한 손실 및 훼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원들의 불교 목판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우수한 보존 상태를 보이며 여전히 상당한 수의 목판이 남아 있기에, 빈응이엠사는 베트남 북부에서 불교 목판의 보관처로서 가장 유명한 사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12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빈응이엠사 다음으로 베트남에서 불교 목판으로 유명한 사원은 역시 박장성에 있는 보다사(Chùa Bồ Đà, 補陀寺)이다. 이 사원은 베트남 내에서 300년 이상 임제선의 중심지로 기능해왔고, 오늘날도 임제선의 선법에 따라 승려들을 교육하고 있다.<sup>25)</sup> 보다사에는 현재 49종의 서적에 해당하는 목판이 총 1,935점 남아 있다. 불교 경전, 계율 및 기타 서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불전이 판각되었다. 『아미타경』, 『금강경』, 『반야경』, 『보문품(普門品)』 등의 불경과 비구니의 계율에 관한 『팔경법방언(八敬法方言)』(1744년 판각), 『사미니위의(沙彌尼威儀)』, 그 외 『불심론(佛心論)』(1881년 판각), 『능엄정맥(楞嚴正脉)』(1841년 판각), 『남해기

23) 많은 베트남 역대 왕조는 한자를 중요시하며 국가의 정통 문자로 여겼다. 쓰놈은 문학 창작, 특히 민간문학에서 활발하게 발전하였다. 띠이썬(Tây Sơn, 西山) 왕조는 쓰놈을 더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쓰놈에 대해서는 쥘 캉 마인·응웬 티 히엔 2009; Nguyễn Tuấn Cường 2019; 장수민(張秀民) 저, 한기(韓琦) 증보, 강영매 역 2016, 1559-1569 등 참조.

24) 쓰놈 유산 보존 협회는 빈응이엠사 목판 중의 『선종본행』 책의 쓰놈을 사전 모범 쓰놈문자로 선정했다(쥘 번 꾡 쥘 티 미잉 2018, 161).

25) 베트남에서 임제선은 쥘 왕조 초기에 세력이 강해졌고, 17세기에 중국에서 선종 승려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넘어온 이후 베트남 지역에 널리 퍼졌다(르영 흥꾸앙 2017, 116-117).

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1930년 판각), 『대비신주(大悲神咒)』, 『참회문(懺悔文)』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것이 1744년에 판각된 『팔경법방언』이고, 가장 늦은 것은 1930년의 『남해기귀내법전』이다(Vũ Đức Nghiệu, ed. 2020, 62-67).

빈응이엠사의 목판 중 가장 오래된 것이 1873년에 판각된 『불설아미타경소초』와 『서방미인전』이었던 것을 상기하면, 보다사는 빈응이엠사보다 129년 더 이른 1744년에 제작된 목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원의 목판들은 빈응이엠사보다 늦게 알려져서 덜 유명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으로도 지정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보다사의 불교 목판이 빈응이엠사의 그것보다 그 중요성 및 가치가 덜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보다사가 빈응이엠사보다 더 다양한 불교 목판을 소장하고 있고, 더 시기가 올라가는 목판을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보다사에는 목판 보존에 적합한 현대적인 설비를 잘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장판각과 전시 및 체험의 기능을 갖는 신축 건물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 아직 신축되지 못하였다.<sup>26)</sup> 여전히 기존의 건물을 목판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고 햇빛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



도 5. 박장성 보다사(Chùa Bồ Đà, 補陀寺) 장판각 내 목판(사진: 하정민)

26) 빈응이엠사는 기념물과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시의 부서와 주지 스님들이 관리한다. 반면 보다사는 기념물 관리 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다(르영 홍꾸앙 2017, 130-131).



도 6. 보다사의 목판 전시관(사진: 하정민)

고, 경질 목재로 만들어진 문에는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통풍구를 냈다(도 5). 내부에는 3단으로 된 10개의 서가에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sup>27)</sup> 서가의 각 단에는 여러 점의 목판이 종류별

로 정리되어 80~85도의 각도를 이루도록 꽂혀 있다. 건물 바닥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로부터 목판을 보호하기 위해 서가 아랫면에 마련된 네 개의 다리를 9cm 높이의 벽돌 위에 올려놓고 있다. 내부에 온도, 습도, 조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 목판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신경을 쓰고 있다. 이 목판고와는 별도로 사원 내 다른 건물에 보다사에 대한 소개와 소장하고 있는 목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내하고 있는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도 6). 역시 기존의 건물을 계속 사용 중이다.

앞서 살펴본 빈응이엠사와 보다사는 베트남 북부에서 불교 목판으로 가장 유명한 사원이다. 이 두 곳 외에도 베트남 북부의 많은 불교사원에는 다수의 불교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이 중에는 이미 베트남 연구자들에 의해 조사되어 현황이 파악되고, 잘 정리된 상태로 보존하고 있는 사원들도 있고, 반면 그렇지 못한 사원도 있다. 하노이 동부의 박닌(Bác Ninh, 北寧)성에 위치한 저우사(Chùa Dâu, 法雲寺 또는 延應寺)는 전자에 속한다. 저우사는 베트남이 중국 한(漢, 기원전 202년~기원후 220년)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루이 러우(嬴婁, Luy Lâu)로 불리었던, 베트남에서 불교가 가장 먼저 번성한 불교의 중심지였던 곳에 있으며,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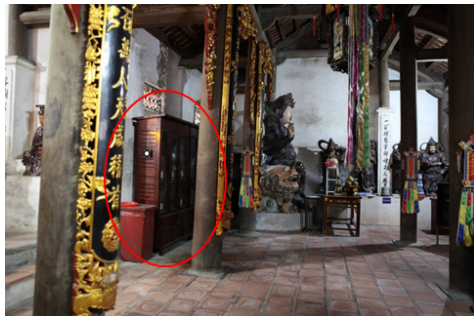
27) 서가의 높이는 1.34m, 너비는 0.35m, 길이는 1.8m이다.

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알려져 있다(도 7)(伊東照司 2005, 18-23). 현재 남아 있는 불교 문화유산은 대부분 18세기 이후의 것이다.



도 7. 박닌(Bắc Ninh, 北寧)성에 위치한 저우사(Chùa Dâu, 法雲寺 또는 延應寺) 전경 (사진: 하정민)

이 사원에도 불교 목판이 다수 있었으나 현재 소수만 전한다. 중심 전각의 우측 벽면에 두 개의 서가가 있고 그 안에 목판을 보관하고 있다(도 8). 서가 안은 철재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 목판은 서로 부딪치는 일 없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이 목판들은 이미 조사되었고, 목판 앞 흰 종이에 『인과경



도 8. 저우사 본당 내부 우측 목판 보관 서가 (사진: 하정민)

(因果經)』, 『공덕경(功德經)』 등의 경전 제목을 베트남어로 기록해 놓았다. 이외 불교 의식용 문헌과 시문학을 새긴 목판도 있다. 서가는 열쇠로 잠금 시설이 되어 있어서 허가 없이는 접근이 금지된다.

하노이 시내의 대규모 사원인 바다사(Chùa Bà Đát, 靈光寺)에도 많은 수의 목판이 남아 있다(도 9). 바다사는 과거 하노이 부근에서 승도 교육 및 훈련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불경 판각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응우옌 쑹 비엌 2018, 221). 18~19세기에 판각된 『대보적경(大寶積經)』과 『불설목련오백문경(佛說目連五百問經)』, 『금강경』을 포함한 6~7종류에 해당하는 3,000여 점의 목판이 사원의 후원에 보관



도 9. 하노이 바다사(Chùa Bà Đát, 또는 린꾸양사[靈光寺]) 목판 보관 서가  
(사진: 하정민)

되어 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목판이 소실되었음에도, 다른 사원들과 비교해보면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수량이 남아 있다. 최근 시주에 힘입어 새 목재 서가를 구매하여 설치하고, 그 안에 불교 목판을 가지런히 배열하여 보관하고 있다. 목판마다 새겨진 경전의 제목을 기재한 흰 종이를 목판의 측면에 부착해 놓았다.

#### IV. 베트남 북부 불교 목판 보존과 활용 방안

위에 언급한 사원과 불교 목판 외에도 베트남 북부의 많은 불교사원에 는 수많은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개별적으로 조사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인 양상 파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목판의 수량이 많고 규모가 큰 사원의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고,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의 목판 컬렉션에는 큰 관심이 기울여지지 못했다. 베트남 북부의

불교 목판 보존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규모 목판 컬렉션 보존에 특히 힘써야 할 것이다.

소규모 컬렉션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목판이 모두 유실된 예로 하노이 시내의 깐안사(Chùa Cà An, 建安寺)를 들 수 있다. 이 사원에는 2016년 6월 한놈연구원(漢喃研究院, Institute of Sino-Nom studies)에서 조사했을 당시 약 150점의 목판이 있었다. 그런데 2년 후인 2018년 7월 재방문 시 이전에 있던 목판이 모두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았다(응우옌 뚜옌 끄엥·응우옌 디잉 흥 2018, 61-62). 그 사이에 사원 건물을 수리하면서 목판을 다른 부속건물로 옮겨 놓았는데, 그 기간에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다행히 깐안사의 목판은 2016년 조사 당시 일괄 사진 촬영이 이루어져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목판 컬렉션을 복원할 수 있다. 깐안사의 목판들은 1745년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판각된 것이었고, 『금강경』(1745년 판각), 『해혹편(解惑編)』(1796년 판각), 『고왕관세음진경(高王觀世音眞經)』(1812년 이전 판각) 등 17종류의 경전에 해당한다.

깐안사에서 판각한 서적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깐안사에서 1745년 판각된 『금강경』과 1796년 판각된 『해혹편』은 이 깐안사 목판을 인쇄한 것을 저본으로 하여 다른 사원에서 1800년과 1859년에 다시 판각한 목판으로 인쇄한 서적이 발견된 바 있다(응우옌 뚜옌 끄엥·응우옌 디잉 흥 2018, 63-64, 84-85). 또한 깐안사 불교 목판 중에서 지금까지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 없었던 새로운 서적인 『서방향림선사정토문(西方香林禪師淨土文)』이 발견되기도 했다. 깐안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목판 덕분에 베트남의 불교 전적 목록에 새로운 서적이 추가될 수 있었던 것이다(응우옌 뚜옌 끄엥·응우옌 디잉 흥 2018, 82).

현재는 소규모 사원의 아주 작은 목판 컬렉션이어도 과거의 상황은 현재와 달랐을 수 있고, 이러한 예들이 베트남 불교 목판의 전체 모습을 복원해 내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목판의 소실이 더

발생하기 전에 소규모 사원들이 소장한 불교 목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연구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목록화 및 디지털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sup>28)</sup>



도 10. 하노이 남부 바오캄사(Chùa Bảo Khâm, 寶龕寺) 조사당 내 목판 보관 서가 (사진: 하정민)

불교 목판은 대부분 사원에 보존되어 있고 목판 관리 및 보존은 주지승과 수도승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목판이 손상될 위험에 처해 있다. 한 예로 하노이 남부에 있는 바오캄사(Chùa Bảo Khâm, 寶龕寺)의 목판 보관 상태를 보면, 사원 조사당 내부의 불단 좌우에 목판을 보관한 서가를 배치해 놓고 있다(도 10). 서가는 안전하고 견고해 보이며 그 내부에 배열해 놓은 목판들도 유사한 크기를 모아 놓고 동일 서적을 판각한 목판들은 끈으로 묶어서 구분하는 등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서가의 규모에 비해 목판의 수가 많아서 목판들이 빈틈없

28) 필자의 현지 조사에 의하면 하노이 한남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꾸준히 목판을 조사하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별 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디지털화한 자료를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 경우도 소수 존재한다. 한남연구원 관계자들에 의하면 불교 목판에 대한 전수조사가 언제 완성될 수 있을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한다. 디지털화된 불교 목판도 현재 비공개여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다.

이 빼곡히 배치되어 있거나 심지어 포개놓은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관하면 목판을 꺼냈다가 다시 넣을 때 판면에 손상이 가해지거나 글자의 자획이 마멸되거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매우 염려스럽다.<sup>29)</sup> 사원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일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서둘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사원에서 주지승이 목판을 보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하노이 시내에 있는 한놈연구원에 기탁하기도 한다. 한놈연구원에는 현재 약 5,000여 점의 불교 목판이 소장되어 있는데 거의 모두 이런 식으로 연구원에 들어온 것이다. 이곳 수장고 역시 충분하지 않아서 보존에 어려움이 있다.

베트남 북부에 현전하는 불교 목판들은 베트남에서 출간되어 온 불교 전적에 관한 연구, 더 나아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유통되어 온 불교 문헌에 관한 연구 방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불교 목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전래한 불전을 베트남에서 새롭게 개판(開版)한 것이지만, 불교 입문서 등 베트남 찬술 전적이거나 쓰놈 문자로 쓰인 주석서로 판각된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0)</sup>

현재 학계에는 베트남에서 찬술된 불교 전적들이 상당수 알려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티엔 우이엔 땀 아인』(Thiền uyển tập anh, 禪苑集英)을 들 수 있다. 찬자(撰者)는 미상이며 성립연대는 14세기 전반으로 보이는데 북송 초기에 편찬된 중국 선종에 관한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을 범본으로 삼아 베트남 선사들의 전기를 펼쳐낸 것이다.<sup>31)</sup> 이들 대부분은 인쇄본으로 한놈연구원과 베트남 국가도서관 등의 연구기관에

29) 목판의 훼손이 우려되는 보관 상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응우옌 쯡 비엣 2018, 229-230.

30) 베트남의 다른 전적과 마찬가지로 불교 전적 중 현전하는 것은 대부분 17~18세기에 간행된 것이거나, 이후 20세기 초에 재간(再刊)된 판본이다.

31) 『티엔 우이엔 땀 아인』은 1715년과 1859년의 두 판본이 전해진다. 宮嶋純子 2020, 156. 이 중 1715년 중간본(重刊本)이 우리말로 번역된 바 있다. 정천구 역, 2001 참조.



도 11. 하노이 남부 케호이사(Chùa Khê Hôi, 溪洄寺 또는 花林寺) 전경(사진: 하정민)

소장되어 있으며, 그 외 여러 불교 사원에 개별적으로 소장된 전적도 적지 않다. 아직 미조사·미공개 자료도 상당하여 현시점에서 베트남 간행 불전의 전모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sup>32)</sup>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불교 목판 중에는 종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베트남 불교 전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연구자들이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사례로 하노이 중심부 호안끼엠 호수(Hồ Hoàn Kiếm, 還劍湖)에서 남쪽으로 약 25km 지점에 있는 케호이사(Chùa Khê Hôi, 溪洄寺 또는 花林寺)의 목판을 들 수 있다(도 11).<sup>33)</sup> 케호이사는 승려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주변 다른 사원들에 불교 서적을 공급하기 위해 불경을 인쇄하던 곳으로, 그 주변 불교 사원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닌 곳이었다.<sup>34)</sup> 케호이사의 중심 전각 내부, 불단을 마주 보는 벽면의 양 끝에 높이 3m, 폭 2m의 목판 보관 서가를 각 두 개씩 배치하여 그 안에 목판을 보관하고 있다(도 12). 서가 밖에

32) 베트남 간행 불교 전적에 관한 목록으로는 陳文珮 輯(1943)에 17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간행된 서적 약 430부가 게재되었다. 종합적인 목록으로 劉春銀·王小盾·陳義主 編 2002와 劉玉瑀 2007 등 참조.

33) 베트남에는 작은 마을마다 각기 하나의 불교사원이 있고, 그 사원의 이름은 마을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케호이사의 이름은 마을 이름인 케호이에서 따온 것이다. 케호이사의 명칭과 역사 및 소장 불교 목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Nguyễn Tuấn Cường, Phạm Văn Tuấn, Nguyễn Văn Thành 2018, 51-87; 응우옌 뚜언 꾀·팜 반 뚜언·응우옌 카오 탄 2017, 146-162.

34) 케호이사의 건립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사원 내에 레 왕조기의 1680년~1705년 사이의 역사적 정보를 담고 있는 석비(石碑)가 발견되어 17세기 말 이전에는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Nguyễn Tuấn Cường, Phạm Văn Tuấn, Nguyễn Văn Thành 2018, 53-59; 응우옌 뚜언 꾀·팜 반 뚜언·응우옌 카오 탄 2017, 146-148).



도 12. 케호이사 본당 내 목판 보관 서가  
(사진: 하정민)

목판에 판각된 불경의 제목을 서가의 목재 위에 흰 글씨로 적거나, 목판의 측면에 검정색 잉크로 각 제목을 기입해 놓았다. 케호이사에는 『문수지남국음(文殊指南國音)』, 『서방공거(西方公據)』, 『치문경훈(緇門警訓)』, 『방

광반야바라밀경(放光般若波羅蜜經)』, 『장엄론(莊嚴論)』 등 19세기에 판각한 서적 7종, 총 726점의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sup>35)</sup> 이 중 『문수지남국음』은 중국어 판본 『문수지남도찬(文殊指南圖讚)』을 쓰놈으로 번역한 책이다. 이 판본은 베트남의 케호이 사원에서만 목판으로 발견되었을 뿐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된 바 없다.



도 13. 하노이 꾸안스사(Chùa Quán Sứ, 館使寺) 소장 『오백명관세음경(五百名觀世音經)』 (20세기 초 판각), 한자와 꾸옥 응으 병기  
(사진: 하정민)

35) 목판 조사는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한놈연구원의 연구원들이 2015~2016년에 행하였다. 케호이사 주지스님에 따르면 연구원에서 제작한 목판의 각 제목 목록 및 사진을 사원에 보내준다고 하고 아직 보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역시 자물쇠로 잠가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 중이다.

20세기에 들어서서 베트남에서는 라틴 알파벳으로 베트남어를 표기하는 꾸옥 응으(Quốc ngữ, 國語)로 불교 문헌이 인쇄·배포되기도 하였다. 하노이 시내 꾸안스사(Chùa Quán Sứ, 館使寺) 조사당에 보관된 『오백명관세음경(五百名觀世音經)』의 목판을 그러한 예 중 하나로 들 수 있다(도 13). 이 경전에는 500개의 관음문(觀音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칭명하며 관음법을 수련하는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경(經)이라고는 하지만 경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고 역자(譯者)의 성명도 없으며 관음보살에 귀의하며 수행하기 위한 의궤에 가깝다. 한자로 먼저 기록하고 바로 옆에 각 글자의 발음을 라틴 알파벳으로 적어 놓아서, 한자를 읽지 못하는 이들이 칭명 의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사원에서 한자로 경전을 적고 그와 함께 독음(讀音)을 기입한 것과 같은 원리이다.

꾸옥 응으로 판각된 목판의 예로 본 꾸안스사에 보관된 『오백명관세음경(五百名觀世音經)』 역시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제목의 다른 판본인 1898년에 판각된 목판의 인출본이 베트남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베트남 도서관 소장본은 한자로만 되어있는 반면, 꾸안스사의 목판은 꾸옥 응으로 각 발음을 적고 있어서 20세기 전반에 실제 불교 의식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케호이사의 『문수지남국음』이나 꾸안스사의 『오백명관세음경』과 같은 불교 목판은 베트남에서 찬술되어 간행된 불전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베트남 내에서 아직 조사되지 않은 전적들이 많고, 베트남 현지 연구자들에 의해 조사되었더라도 미공개 의 자료들이 상당하여 현재로서는 베트남 간행 불전의 전모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앞으로 활발한 조사와 연구가 누적되어 간다면, 베트남에서만 유통되었던 경전 및 쓰눔으로 번역되거나 병기된 목판의 사례들은 베트남 북부에서 특히 어떠한 불교 경전이 선호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

도록 해주는 매우 흥미로운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에 파악되지 못했으나 불교 목판을 통해 새로이 발견되는 베트남계의 한자 불교 전적들은 동아시아 불교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자 불교문화권의 불교 문헌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이상으로 베트남 북부의 불교사원에서 제작·보관하고 있는 불교 목판 제작의 배경과 특징, 보존 현황 및 앞으로의 활용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북부는 중국과 영토가 맞닿아 있고 문화적으로 중국의 영향이 매우 강하여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지니는 불교문화 및 미술이 발전했다. 본고에서 살펴본 베트남 북부의 불교 목판은 북방 육로를 통해 전해진 것으로 중국과 매우 유사한 양상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중국과는 다른 베트남 찬술 전적이 다수 발견되는 등 베트남의 독특한 불교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베트남의 불교 목판은 앞으로 동아시아 불교 문헌의 연구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불교 연구는 중국과 주변 국가에서 편찬된 여러 대장경에 실린 전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에서 베트남에서 간행된 불전들은 그 존재 자체가 거의 인식되지 않았고 학계 연구에서의 활용도 매우 제한적이었다(宮嶋純子 2020, 156-157).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북부의 여러 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목판 불교 경전의 현황을 조사하여 소개했는데, 『화엄경』, 『금강경』, 『아미타경』과 같은 잘 알려진 대승불교 경전 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래 학계에서는 베트남 불교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각 경전의 특징 및 성격도 아직 규명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베트남 간행 불전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 경전의 의미를 규명하여 베트남 불교문화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의 불교 목판들은 기존에 알려진 베트남 불교 전적들에 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며 베트남 간행 불전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베트남 불교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문화 교류사를 고찰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동아시아의 한자 불교 문헌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었던 중요한 한 부분을 채워 넣는 데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투 고 일: 2023년 01월 16일

심사완료일: 2023년 02월 09일

게재확정일: 2023년 02월 09일

##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2007. 『베트남, 삶과 문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김방울. 2021. “전근대기 동아시아 4국 인쇄술의 보급과정과 문화동인(動因) 고찰.” 『동양고전연구』 83: 165-194.
- 도 뚜언코아. 2017. “전통 방식을 통한 영업사 목판의 보존.”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편. 『아시아의 목판 보존 경험의 공유』.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르영 홍꾸앙. 2017.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목판 보존 체계 구축 - 베트남 박장성 영업사 및 보타사 목판 사례 연구.”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편, 『아시아의 목판 보존 경험의 공유』.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박금표. 2010. “베트남근대화에 미친 불교의 영향.” 『한국선학』 36: 555-569.
- 베젤, 오스카. 조흥국 역. 1997. 『인도차이나』. 서울: 주류성.
- 송정남. 2000. “베트남의 불교.” 한국베트남학회 편. 『경제개혁으로 21세기를 여는 민족주의의 나라 베트남』.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송정남. 2010. 『베트남의 역사 읽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송정남. 2018. 『베트남 역사 탐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MOWCAP).  
“Woodblocks of Vinh Nghiem Pagoda, Bac Giang Province.”  
MOWCAP ARCHIVE  
<https://mowcaparchives.org/items/show/94>(검색일: 2022. 10. 4.).
- 유인선. 2005. “베트남 黎朝의 성립과 儒敎理念의 확립: 불교이념으로부터 유교이념으로.” 『동아연구』 48: 5-59.
- 위안 하이. 2014. “목판 인쇄술이 동아시아 문화에 미친 영향.” 『석당논총』 58: 107-121.
- 응우옌 쑹 비엣. 2018. “하노이(탕롱)지역 사원·신사 문화·역사 유적지의

- 목판 유산.”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편, 『아시아 목판의 문화사 - 인식과 비교』.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응우옌 뚜언 공·팜 반 뚜언·응우옌 카오 탄. 2017. “19세기 불교 인쇄 문화 맥락에서 본 케호이(Khe Hoi, 溪洄)사의 목판 컬렉션.”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편. 『아시아의 목판 보존 경험의 공유』.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응우옌 뚜언 끄엥·응우옌 디잉 흥. 2018. “간안(Càn An)사 목판 사례 18~19세기 베트남 북쪽 인쇄문화 및 불교지식 네트워크.”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편. 『아시아 목판의 문화사: 인식과 비교』.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이병욱. 2018. “베트남불교의 역사와 현황.” 불교평론 편. 『동남아불교사』. 불교학술총서 2. 서울: 인북스.
- 장수민(張秀民) 저, 한기(韓琦) 증보, 강영매 역. 2016. 『중국인쇄사』. 서울: 세창출판사.
- 전존훈(錢存訓), 김의정·김현용 역. 2013. 『중국의 종이와 인쇄의 문화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정천구 역. 2001. 『베트남 선사들의 이야기(禪苑集英)』. 서울: 민족사.
- 쩨 번 공·쩨 티 미잉. 2018. “베트남 목판 유산의 특별한 가치.”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편. 『아시아 목판의 문화사: 인식과 비교』.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쩨 각 마인·응웬 티 히엔. 2009. “베트남 찰놈(Chu Nom: 字喃)과 베트남에서 찰놈 문헌의 보관과 연구.” 『규장각』 34: 89-102.
- 타이 쯩 쓰. 2018. “찰간사(Chùa Trăm Gian); 베트남 목판 유산 보존 모델.”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편. 『아시아 목판의 문화사: 인식과 비교』.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편. 2017. 『아시아의 목판 보존 경험의 공유』.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편. 2018a. 『아시아 목판의 문화사: 인식과

- 비교』.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편. 2018b.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 MOWCAP 20년간의 기록: 세계의 기록』.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편. 2014. 『목판(木板), 지식의 숲을 거닐다』.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宮嶋純子. 2020. “近世ベトナム北部地域における仏典刊行事業.”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 53: 155-172.
- 石井公成 編. 2010. 『新アジア仏教史 10 漢字文化圏への広がり』. 東京: 佼成出版社.
- 石井公成. 2022. 『佛教在漢字文化圏の流布: 朝鮮半島, 越南』. 臺北: 法鼓文化.
- 劉玉珺. 2007. 『越南漢喃古籍の文献学研究』. 北京: 中華書局.
- 劉春銀·王小盾·陳義主 編. 2002. 『越南漢喃文獻目錄提要』. 臺北: 中央研究院 中國文哲研究所.
- 伊東照司. 2005. 『ベトナム佛教美術入門』. 東京: 雄山閣.
- 張秀民. 1958. 『中国印刷術の發明及其影響』. 北京: 人民出版社.
- 中村元·笠原一男·金岡秀友 編. 1976. 『アジア仏教史 10 東アジア諸地域の仏教—漢字文化圏の国々』. 東京: 佼成出版社.
- 陳文理 輯. 1943. 『河内遠東考古学院現藏越南佛典略編』. 東京: 東京國際佛教教會.
- 陳益源. 2011. 『越南漢籍文獻述論』. 北京: 中華書局.
- 川本邦衛. 1976. “ヴェトナムの仏教.” 中村元·笠原一男·金岡秀友 編. 『アジア仏教史 10 東アジア諸地域の仏教—漢字文化圏の国々』. 東京: 佼成出版社, 1976.
- 川上正史. 1944. “宋勅版藏經安南傳來考.” 『支那佛教史學』 7-1(通號 85): 59-62.

- Hà Văn Tấn et al. 1993. *Chùa Việt Nam (Buddhist temples in Vietnam)*. Hanoi: Nhà xuất bản Khoa học xã hội.
- Kornicki, Peter. 2007. "Japan, Korea, and Vietnam." Eliot Simon and Rose Jonathan, eds. *A Companion to the History of the Book*. Oxford: Blackwell.
- Nguyễn Tài Thư, ed. 2008. *The History of Buddhism in Vietnam*. Washington DC: The Council for Research in Values and Philosophy; Institute of Philosophy, Vietnam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 Nguyễn Tuấn Cường. 2019. "Research of Square Scripts in Vietnam: An Overview and Prospects." *Journal of Chinese Writing Systems* 3-3: 189-198.
- Nguyễn Tuấn Cường, Phạm Văn Tuấn, Nguyễn Văn Thành. 2018. "Buddhist Print Culture in Nineteenth Century Northern Vietnam: A Case Study of the Woodblock Collection in Khê Hối Temple."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13-3: 51-87.
- Tran, Thi Loan and Nguyen Thi Ngoc Mai. 2017. "The Process of Handling Materials before Digitizing the Heritage of Woodblocks of Vinh Nghiem Pagoda." *Atlanti* 27-1: 253-258.
- Vũ Đức Nghiệu, ed. 2020. *Mộc Bản Chùa Vĩnh Nghiêm Chùa Bồ Đà*. Hà Nội: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Abstract

---

**Buddhist Woodblocks in Northern Vietnam:**  
The Characteristics, Preservation, and Meaning in the Context of  
Buddhist Literature in Vietnam

Jungmin HA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A multitude of Buddhist woodblocks is housed in Buddhist temples in northern Vietnam. Most of these Buddhist woodblocks are Mahāyāna sūtras inscribed in Chinese characters. This study traces the transmission of Buddhism and Buddhist sūtras to Vietnam and examines the development of woodblock production as a printing technique in Vietnam. It also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preservation status, and future utilization plans of the Buddhist woodblocks, focusing on the woodblocks stored in Vĩnh Nghiêm Temple and several Buddhist temples, which are the most well-known Buddhist woodblocks in northern Vietnam. The woodblocks were produced in a very similar manner to those of China, but reflect Vietnam's unique Buddhist culture which is distinct from China. The study on these woodblock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not only grasping the overall aspects of Buddhist traditions published in Vietnam, but also completing the previously missing parts in the list of Buddhist literature

spread in the Sinitic world.

**Keywords:** Vietnam, Buddhist Sūtras, Tripiṭaka, Woodblock, UNESCO Memory of the World,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 Chùa Vĩnh Nghiêm, Nguyễn Dynasty, Chữ Nôm, Quốc ngữ